

# 중남미 불평등 심화 관련 보고서(CEPAL, 2022)

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2-02-09

최근 주재국 주요 일간지 엘메르쿠리오(El mercurio)는 특집 기사를 통해 유엔(UN)산하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발간한 「2021 라틴아메리카 사회 파노라마」 보고서를 게재하고,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중남미 역내 극빈 인구가 8천 6백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보고한 바, 기사 요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 2021년 중남미 극빈층 27년 전 수준으로 퇴행

- '22.1.25.(화) ECLAC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극빈 인구(1일 생활비 1.9달러, 약2300원)가 1년 새 5백만 명 증가해 2020년 8천 1백만 명에서 2021년 8천 6백만 명을 기록하며 27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발표함(2021년 기준 총인구 6억 6천여만 명).
- 2020~2021 간 극빈율은 13.1% -> 13.8%로 증가, 빈곤율은 33% -> 32.1%로 소폭 감소(칠레의 경우 빈곤율 14.2%, 극빈율 4.5%)
- 2020년 대비 2021년 빈곤층과 극빈층이 2020년 대비 모두 7%p 이상 증가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로 집계됐으며, 브라질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빈곤인구가 줄어든 국가로 빈곤율과 극빈율이 2020년 대비 각각 1.8%, 0.7% 감소

### <역내 빈곤 상황 추이> (단위: %)

	1990	2010	2018	2019	2020	2021
빈곤율	51.2	31.6	29.8	30.5	33.0	32.1
극빈율	15.5	8.7	10.4	11.4	13.1	13.8

출처:CEPAL(데이터은행 기반)

## 나. 팬데믹 아래 실업 -> 빈곤 및 불평등 심화 주 원인

- 2021년 극빈층 증가 주요인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 △실업으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긴급소득지원금 감소, △더딘 경제회복 속도, △사회보장정책 투자 감소 등이 작용함.

- 특히 역내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분기(1~10월)까지 총 897억 달러였으나, 2021년 동기간 453억 달러로 절반 정도 줄어든 영향으로 중남미 국가 절반 이상이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팬데믹 이후 사회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양육 및 노인간병을 위해 가정 내 무급노동에 전담하면서, 여성 인력 노동시장 참여율이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는 2019년 51.8%→ 2020년 47.4%→ 2021년 50%, 남성의 경우 2019년 75.5% → 2020년 70.8%→ 2021년 73.5%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남성에 비해 느린 속도로 회복 중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불평등한 소득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원주민, 아동 불평등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다. 백신 보급의 불평등 -> 역내 보건위기 심화

- 팬데믹은 국가 별 백신수급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보건 시스템 불평등 심화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인구가 70%를 달성한 국가는 33개국으로 집계됐으며, 중남미에서는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총 4개 국만 이에 해당
- 특히 역내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아이티는 백신 2차 접종 완료 인구가 40%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로 중남미 내 백신접종 불평등 또한 심각한 수준
-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년까지 2차 백신접종 목표 인구를 전 세계 70%로 설정하고, 중남미 내에서 최소 4억 6천만 명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동 기관은 보건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역내 백신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경제 및 사회 회복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